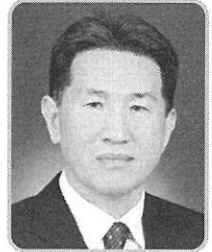


# 태국의 사료산업 현주소



양 승 복  
본회 물류부장

## ■ 축산업 현황

드라마·영화 등을 통해 한류 열풍이 일본 및 동남아에서 지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K-pop이라 불리는 한국의 대중음악이 세계인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오후 태국의 방콕 거리는 젊은이들로 술렁거렸는데 다름 아닌 싸이의 첫 아시아 스케줄이 태국의 방콕 무앙통타니 SCG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기 때문이다.

태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각별한데, 6·25전쟁시 아시아 국가로서는 가장 먼저 유엔의 한국지원에 호응하여 쌀 4만톤을 제공하였으며, 전투부대를 포함한 육해공군 1만 3천여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또한 2010년 1월 한·태국 자유무역협정 [한·아세안 FTA] 발효로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태국은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업의 발전으로 식품가공 산업 분야가 가장 발달하였으며,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및 북미 여러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량이 전체 축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육계 및 양돈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11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이 약 1,200만톤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미국대두협회 한국지부는 탈피대두박에 대한 양계 및 양돈에서의 사료적 효용성과 특히 흑서기의 탈피대두박 활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사료협회 회원사의 태국 사료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부국사료, 케이씨피드, 고려산업, AT생명과학, 두산생물자원, 흥성사료와 필자를 포함한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7명은 미국대두협회 이형석 상무와 함께 2012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태국의 주요 사료회사 및 대두박 생산공장을

방문하는 태국 출장길에 올랐다.

주요 방문지는 Betagro社, TVO社, Inteq Feedmill社, SPM Feedmill社이며, 아래에서 간략하게 방문지별 회사와 주요 사업내용 등을 소개함으로써 태국의 사료산업 및 관련 산업을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1. Betagro Public Co., Ltd

Betagro社는 196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초창기에는 동물사료 생산 및 공급 위주로 운영하였다. 이후 가금 및 돼지 수직계열화 사업을 가속화하여 자체 부화장, 양계장, 양돈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사료(양계, 양돈 및 기타 애완용 사료 등)를 비롯한 육계 및 돼지 가공 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고 품질 좋은 고기 생산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는 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Let's Make Life Better!'라는 슬로

건 아래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시찰단은 방콕 인근의 Betagro社 소속 사료공장을 방문하였는데, Betagro社는 태국 내에 8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CP 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사료회사이다. 여기 공장에서는 월 2만 3천톤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원료는 옥수수를 비롯하여 탈피대두박, 해바라기박, 팜박, 채종박, 미강, 쌀 등이며 특히 옥수수의 경우 100% 자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Betagro社의 중앙연구소가 있는데 원료에 대한 성분분석과 축종별 급여시의 가치 분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통하면 탈피대두박의 양계 및 양돈에 대한 사료적 가치 및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 2. TVO(Thai Vegetable Oil Public Co., Ltd)

TVO社는 방콕에서 4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대두 착유 공장이며, 이 분야에서는 태국 제1의 기업이라고 한다. 태국 내에 4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6천톤의 대두를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대두유와 대두박이 전국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대두유 생산량의 18%는 수출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대두유의 수율은

18%이며 대두박의 수율은 72~73%인데, 대두 가격이 생산원가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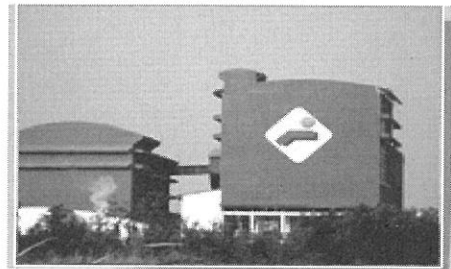
특히 원료인 대두를 전량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며 그 이유는 예전에 아르헨티나산 대두 껍질에서 마이크로톡신이 검출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태국 내에서의 대두유 시장은 매년 3~5%의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또한 닭고기 및 돼지고기의 생산 증가로 인하여 대두박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해외로 부터의 대두박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도 태국의 대두박 수입량 : 240만톤], 특히 사료적 가치 및 효용성에 비추어 탈피대두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였다.

### 3. Inteqc Feedmill社

Inteqc社는 총 4개의 자회사 즉, Livestock Agriculture Business International社, Prima Tech社, Lab INTER社 및 Inteqc Feedmill

社를 두고 있다. Livestock Agriculture Business International社는 양어(새우)용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Prima Tech社는 식품 첨가제 및 수질관리 키트와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Lab INTER社는 애완용 사료와 첨가제 및 건강/영양보조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Inteqc Feedmill社는 주로 양어·양돈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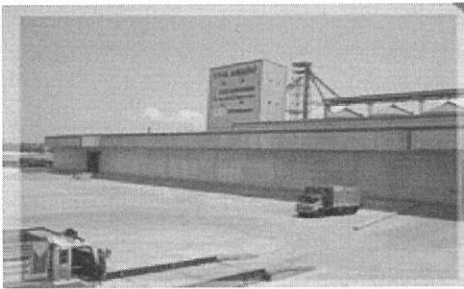


우리 시찰단은 Inteqc社의 자회사중 하나인 Inteqc Feedmill社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1999년 새우용 사료 생산을 위해 만들어져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생산라인을 증설하였으며, 2007년에는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하여 양어용 및 양돈용 사료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연간 사료 생산량은 양어용 23만톤, 양돈용 7만톤 정도이다.

### 4. SPM Feedmill社

우리 시찰단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SPM Feedmill社는 자가 사료 생산업체이며, 직영 양돈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사료 생산량은 연간 2만톤이며, 총 2만 5천두(모든 1천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을 가지

고 있었다. 이곳의 사료용 원료 구매패턴은 타 회사들과의 공동 구매형태로 Handymax 급의 선박을 통하여 원료가 도입되고 있다. 대두박은 전량 수입으로 조달되며 비탈피 대두박에서 제랄레논이 검출된 바 있어,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탈피대두박만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2013년 6월까지 도입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선도구매 기간을 늘려 1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도산 대두박 구매시에는 품질의 균일성 확보를 위하여 인도 지역의 1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두박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돈 농장과 관련해서는 태국의 경우 돼지 출하체중이 105kg이며 성장기간은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출하체중 110kg에 성장기간이 5개월인 점과 비교하면 태국은 출하체중이 적은 반면 성장기간은 한 달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 5. 마무리하며

이번 태국 출장은 3박 4일간의 짧은 일정

이었지만, 알찬 스케줄로 태국의 사료산업과 관련 산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태국의 경우 농업 분야가 발전될 수 있는 천혜의 기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노력이 집약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태국 역시 1차 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경공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산업 부문인 농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태국 역시 경제발전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대폭 증가하여 축산 및 식품가공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닭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양계 및 양돈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Charoen Pokphand Group(CP 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CP그룹이 생겨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어서 여기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CP그룹과 같이 주요 식품가공업체들은 수직계열화 사업을 통하여 사육에서 생산 및 가공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인 시스템을 갖춰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은 사료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의 경우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주요 품목 중의 하나가 대두를 착유하고 남는 부산물인 대두박이며, 대두박 중에서도 대두피를 제거한 고단백질의 탈피대두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다. 일반적으로 탈피대두박의 경우 조단백질 및 아미노산의 조성이 높아 배합사료 생산시 아미노산의 첨가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화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되지 않는 비전분질 다당류(nonstarch polysaccharides; NSP) 함량이 적어 소화율을 높이며, 특히 모돈 및 자돈의 사료 내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태국과 같은 더운 날씨에 고품질의 탈피대두박 사용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의 경우도 흑서기에 양계 및 양돈에 있어서 탈피대두박의 사용량을 높인다면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신 미국대두협회 한국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번 태국출장을 함께 하신 회원사 분들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계사년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